

순천시 '주말의 광장' 올 피날레 행사

내일 신대천서 대규모 거리 축제
해방로드서 문화·예술·휴식 즐겨
다채로운 가족중심 콘텐츠 마련

순천시가 오는 20일 신대천과 인근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 피날레 행사를 개최한다.

'주말의 광장'은 일상 속 도심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예술·휴식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된 순천시 대표 생활문화 축제다.

이번 행사는 올해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주말의 광장'으로, '신대천 열림식'과 연계한 신대지구 최초의 대규모 거리형 축제로 마련됐다.

'신대천 열림식'은 그동안 단절돼 있던 물길을 다시 열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의미를 담아 마련된 행사로, 이번 열림식을 통해 신대천은 단순한 하천을 넘어 시민이 걷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주말의 광장 상장인 '잔디로드'는 이번 피날레에서도 신대천 공영주차장 앞 거리에 조성된다. 평범한 거리를 초록빛 쉼터로 탈바꿈해, 차 없는 거리에서 여유롭고 안전한 보행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의 가치를 전달한다.

신대지구 특성을 반영한 가족 중심 콘텐츠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캐리커처, 군밤 만들기 체험, 콘텐츠 마켓, 오락실 느낌의 콘텐츠 놀이터, 그리고



지난 9월 연향파선의 거리에서 열린 '주말의 광장 with 청년의 날' 축제 모습.

풍성한 먹거리 부스로 꾸며진다.

특히, 순천시 캐릭터인 '루미팡이'와 인기 캐릭터 '밸리곰'의 대형 조형물과 함께 연말 분위기를 더할 수 있도록 신대천을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연출해 따뜻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신대천 공영주차장 메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순천시 흥보대사 나영의 무대를 시작으로, 인기 밴드 루시와 테이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이외에도 순천 버스킹 경연대회 우승자의 특별 무대, 국가대표 비보잉 크루 '퓨전엠씨'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버블, 마술 등 거리공연과 DJ의 엔딩쇼까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이번 축제가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민생복지지원금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도심에서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신대천 일대가 단순한 하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여가, 휴식이 공존하는 도심 속 문화광장으로 재탄생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이차전지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 현장 점검

활성화 협약 체결 기업 4개사 방문

광양시가 지난 15일 스타트업 스케일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기업 4개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확장 계획을 공유했다. <사진>

광양만권은 이차전지·철강·첨단소재 분야의 엔커기업이 집적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 견증과 양산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양산 단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스케일업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9월에 열린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 지원사업 쭉오фф' 행사에서 ▲㈜에이비알 ▲㈜네이트로닉스 ▲그린미네랄 ▲㈜에바인더스 등 4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향후 양산 단계로 전환될 경우 광양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기업 활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광양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협약 이후 실증 사업이 실제 현



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며, 시 관계자들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와 익산단 일원의 이차전지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시는 각 기업이 ▲배터리 제제조 ▲양극재 직접 재생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인 리튬을 친환경 방식으로 회수하는 기술 ▲차세대 나트륨 이온전지 소재 개발 등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파일럿 설비를 운영하며 양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확인

인했다. 또한 이번 스케일업 실증 사업을 통해 향후 총 87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05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확장 계획을 공유받았다.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 성과와 성장 가능성 이 확인됨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 포스코홀딩스 등 유관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부터 성장,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 향교 유교 아카데미 6개월 과정 성료

시문학·제례·의병사 등 강좌

구례 향교에서 실시한 2025 유교 아카데미 강좌군민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6개월의 과정을 마쳤다.

국가 유산청이 후원하고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과 구례향교가 개설한 이번 강좌는 종교사상 시문학 제례 역사자리 의병사 등 인문학을 주제로 서울 광주 구례 등에서 국내 유명 강사진이 참여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80여명이 수강 했다. 특히 93세 양문석 응이 강좌에 참여하여 배움에는 늙고 젊음이 없음을 증명하듯 노익장을 과시했다. 구례 향교는 올해에 이어 2026년에도 강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에서는 전국 234개의 향교와 500여개의 서원을 대상으로



구례 향교 유교 아카데미 강좌에 참여한 93세 양문석(왼쪽) 응이 수료증을 받고 있다.

30여개를 선정 강좌를 열고 있으며 구례향교는 2018년부터 선정 되어 매년 실시 해 오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조성 완료

사방댐·계류보전 등 4곳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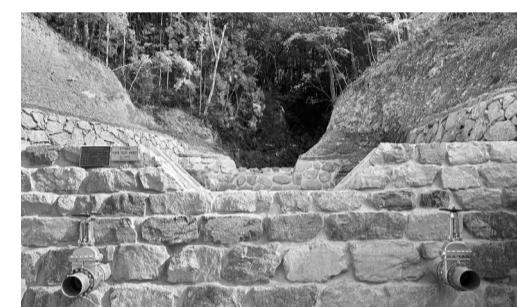
여수시가 산사태 취약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추진해 온 사방사업 대상지 4곳에 대한 조성을 마쳤다.

이번 사업에는 사방댐 1곳, 계류보전 1곳, 급경사지 안정화를 위한 산지사방 2곳이 포함됐으며,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과 붕괴 위험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신설된 사방댐은 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석류를 차단해 하류 주거지역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계류보전은 계곡부의 물 흐름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완화해 강우 시 유로 붕괴를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산지사방은 비탈면 보강과 식생 복구를 병행해 지반 안정성을 높여 장마철 반복되는 침식과 붕괴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 완료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구조적 안전 여건을 보완하고 향후 장마·호



여수시가 산사태 취약지역 4곳에 사방시설을 조성했다.

우 시기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울러 시는 2026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추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조성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dongbu-chewon@chukim@

스마트팜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흥이든' 개발

갖춘 고흥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믿음직스러운 농산물이라는 정체성을 담았다. 특히 '고흥'과 '이든'(작한, 어진의 순우리말)을 결합해 브랜드만으로도 고흥의 작한 농산물을 연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브랜드마크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생육환경을 형상화해 안정적이고 고생산성이 고흥 스마트팜 농산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고흥군은 이달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8기 실습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포장제에 개발한 브랜드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브랜드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유네스코 세계 유산
www.getbolworldheritage.org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인증구역 (㎢)
총면적 (㎢)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성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면적(보유면적 1,497.24㎢)의 약 86%, 국가연안면적(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개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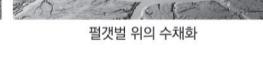


펄개벌 위의 수체화

새들의 휴식처인 사하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출추는 무희, 사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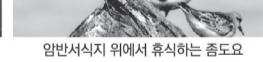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종묘

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든든 특이ティ적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흔한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멕이활동, 서식굴, 풍동여사, 업남계, 엄생식물, 오염된 갯벌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멕이활동



서식굴



풍동여사



업남계



엄생식물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현장!

